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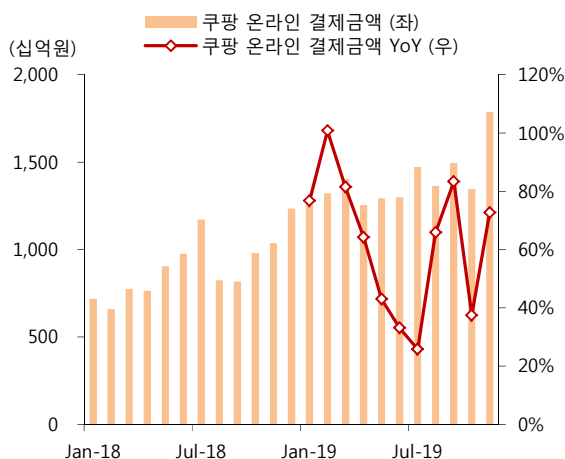
- ✓ 쿠팡의 2019년 11월까지 누적 온라인 결제금액은 15.3조원
- ✓ 물류센터 증설과 유상증자가 거의 동시에 진행됨
- ✓ 아직 미비한 시재를 매출 증대로 어디까지 커버할 지가 관건

쿠팡 뉴스 업데이트: 결제액, 증설, 증자

쿠팡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5조 3천억원 가량의 온라인 결제금액을 달성함. 경쟁업체들 대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결제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쿠팡의 매출액도 작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임. 영업적자는 확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전체적인 영업손실률이 전년 대비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됨.

그리고 쿠팡은 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 공사를 시작함. 총 투자 비용이 3,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 차원에서 유상증자도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2018년에 모회사인 쿠팡 LLC로부터 6,000억원을 증자 받은 데 이어 2019년 7월 5,205억원, 9월 1,548억원, 12월 1,165억원까지 총 1조 3,540억원 가량을 수혈 받음.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은 2조 3,000억원 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직은 수천억원 가량의 실탄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음. 이는 현재 쿠팡의 연간 적자 규모 대비(2018년 영업손실 약 1조원)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결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조만간 시작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영업손실률을 개선시키며 유동성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쿠팡의 온라인 결제금액 추이



물류센터 증설과 유상증자를 단행한 쿠팡

쿠팡, 대구에 축구장 46개 넓이 초대형 물류센터 짓는다

쿠팡이 대구에 축구장 46개 넓이(약 10만평)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중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구 물류센터는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총 투자비용은 3천 200억원이다. (하략)

쿠팡, 1165억원 추가 유상증자... 재무건전성 강화 위한 실탄 장전

(전략) 7월 5205억원 상당, 9월 1548억원 상당에 이어 이 달 1165억원까지, 총 7915억원 안팎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6000억원까지 합하면 1조 4000억원 규모 (하략)

자료 : 산업자료, SK 증권

자료 : 연합뉴스(2019-12-30), 전자신문(2019-12-30),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